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문화유산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탐바사야마의 주요 프로젝트
오니시 히로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단바사사야마의 주요 이니셔티브

단바 웨어

단바 웨어는 세토, 토코나메, 시가라키, 에치젠, 비젠과 함께 850년에 걸친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6대 고대 가마 중 하나입니다. 이 가마들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지속된 지속되는 전통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7년 일본 문화청으로부터 "일본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단바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단바도자기축제-4만명의 관람객

단바 도자기 축제는 1978년부터 단바 사야마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공예 행사입니다. 2021년과 2023년, "가을의 단바 창고 마을 투어"는 10월 한 달 동안 방문객들에게 가마와 갤러리를 둘러보는 시간을 제공하여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행사들은 2019년까지 지정된 한 장소에서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행사 기간을 2~3주로 연장했습니다.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약 50개의 도자기 스튜디오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변화는 또한 자연스럽게 관광객과 장인 간의 더 깊은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는 전반적인 관광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사야마의 성곽 마을과 후쿠즈미의 우체국 마을은 일본 문화청으로부터 "역사적인 건물군 보존 지구"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전국의 10개 지역 중 하나로 모범 경관 개조 프로젝트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마을 경관에 중요한 두 거리인 오테도리와 가와라마치도리의 전신주를 제거하는 것을 완료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전선을 땅에 묻거나, 도로를 아름답게 하고, 가로등을 개조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미관을 높이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그 도시를 방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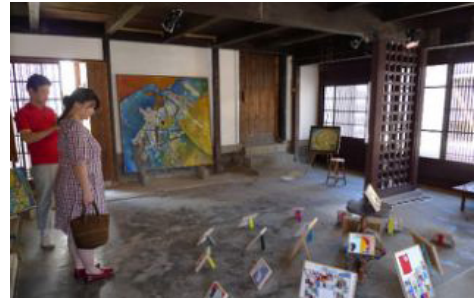


단바 사사야마 역사 거리 예술제—18,000명의 관람객

단바 사사야마 역사 거리 예술제는 "역사적인 건물군 보존 지구" 중 하나인 카와라마치 지구 주변에서 개최되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비엔날레입니다. 그 축제의 중심 주제는 전통적인 마차 마을의 집들을 예술 박물관으로 바꾸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 30개의 마차가 공예와 현대 예술의 혼합을 보여주면서, 창의적으로 갤러리로 변형되었습

니다.

이 행사는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를 촉진했고 그 지역의 관광 진흥에 기여했습니다. 그 축제 장소는 개조된 마차와 일반 거주지 내에 위치한 카페와 호텔을 포함합니다. 그 행사는 도시 내외의 예술가, 공예가, 그리고 건축가를 포함한 46개의 전시업체를 끌어 모았습니다.



단바 사사야마 공예촌

단바사사야마시(Tambasasayama City)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도시로 이주하는 공예가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단바사사야마 공예 마을"은 이러한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공예 시장 및 오픈 팩토리 행사가 2021년에 개최되었고, 워크숍 스타일의 행사가 2022년과 2023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공예 문화를 정착시켰고, 그 마을은 공예와 민속 예술로 유명한 창조적인 농촌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UCC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간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주요 이니셔티브가

실행되었습니다.

단바사사야마시는 다음과 같은 일부 파트너십 및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2022년 창마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Ceramics)와 함께하는 장인 및 장인을 위한 국제 역량강화 워크숍
-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